

제35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개최식 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유난히 밝게 느껴집니다. 세계 70여개국을 대표하는 보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펼쳐진 '과학공연'도 아주 신선하고 흥미로웠습니다.

제35회 물리올림피아드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미래의 노벨상 수상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해외 참가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써 주신 고르즈코프스키 국제물리올림피아드 총재와 황정남 대회장,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제자를 길러 내신 선생님들께도 존경과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과학영재 여러분,

저는 법률가 출신이지만 늘 과학의 세계를 동경해 왔습니다. 법의 심판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과학이야말로 하느님의 섭리와 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는 과학서적을 보는 것이 즐겁습니다. 과학에 대한 학습과 탐구에서 즐거움을 찾는 여러분이 부럽기까지 합니다.

21세기는 과학기술인이 변화와 발전을 주도해 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창의와 열정을 지닌 사람들이 이끌어 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 백만명, 천만명, 아니 인류사회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뛰어난 재능과 끊임없는 탐구가 조국의 발전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분야는 물론 다양한 취미와 폭넓은 사고를 가진 과학자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나라는 수천년 동안 쌓아온 독창적인 과학기술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적자원이 많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역동적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과학기술 혁신을 국가발전의 최우선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과학자의 꿈을 키우고, 과학의 합리성과 창의성이 지배하는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과학의 육성과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한 분을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으로 모신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러플린 박사가 바로 그분입니다.

세계의 과학영재들이 함께 모여 지혜를 겨루는 이번 행사도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들의 과학 열기를 북돋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가 학생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이미 성공의 주인공들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동

안 갖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십시오. 아울러 세계의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대회를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